

## 남양금속(주) 제5라인 투자

대구 달성공단내 위치한 남양금속(주)은 현재 생산능력을 상회하고 있는 국내외 수주에 대응하고, 효율성이 떨어진 노후 라인의 저조한 생산성을 높여 향후 장기적 Vision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약 20억엔을 투자하여 기존 노후라인을 신설라인으로 개체하는 투자를 결정했다.

용해로, 자동주탕기, 자동조형라인으로 이루어질 제5라인은 기존 월 1,0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노후라인을 월 3,0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최신식 설비로 탈바꿈함으로써, 총 생산능력을 현재 월 6,000톤에서 33%늘어난 8,000톤으로 높일 예정이다. 지난 6월 착공을 개시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 정상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투자가 성공리에 끝날 경우, 향후 일본의 모카공장, 미국의 HMAC와 상호 협력하여 생산물량이 부족할 경우 상호보완해 나갈 수 있는 3극체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